

봉인 파일

봉투 C

이 파일은 읽지 말고 인쇄하세요. 인쇄한 페이지를 ‘C’라고
적은 봉투에 넣고 봉하세요.

다음 페이지 질문에 대한 답을 팀이 합의하기 전에는 열지 마세요.

C

봉투 C

누가, 왜 사일러스 렌을 죽였으며, 이를 증명하는 물적
증거는 무엇인가?

여기를 잘라 봉하세요. 팀이 답에 합의했을 때만 여세요.

에버렛 러스크

동기. 러스크의 남쪽 해안 개발 사업 전체가 턴 포인트 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. 사일러스는 팔기를 거부했고, 미망인 노라는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. 1980년 6월 유산 정리가 끝나자, 노라는 곳을 턴 포인트 홀딩스에 85,000달러에 팔았습니다(등기소 기록).

수법. 러스크는 17:30 연락선으로 섬을 떠나 하버 안에 투숙하는 모습을 일부러 내보였습니다. 21:30, 그는 야간 직원에게 산책하러 간다고 말하고 ‘E. 로슨’라는 이름으로 3번 보트를 빌렸습니다 — 전화번호에는 자기 사무실 번호 (617) 555-0148를 적었습니다. 그리고 저조 때 곳으로 건너갔습니다. 사일러스는 그를 탑 안으로 들였습니다. 세 번째 층계참에서 러스크는 시계장치를 감는 크랭크로 그를 두 번 내리친 뒤,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.

증거.

- 보트 대여 장부의 전화번호는 러스크 명함에 적힌 번호와 같습니다.
- 야간 직원은 그가 21:30에 나갔다가 두 시가 넘어 무렵까지 젖은 채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— 저녁 내내 방에 있었다는 그의 진술은 거짓입니다. 숙박부에 따르면 4호실 손님은 에버렛 러스크였습니다.
- 세 번째 층계참의 J. Press 황동 단추는 베이뷰 세탁소 접수증과 맞아떨어집니다. 월요일에 러스크는 남색 블레이저의 J. Press 단추 하나를 교체하고, 바지의 소금 얼룩을 빼 달라고 맡겼습니다.
- 젖은 가죽 밑창의 11호 발자국이 선착장 쪽에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. 사일러스는 9호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.
- 크랭크의 지름 2.5cm 둥근 돌기는 지름 2.5cm 골절 두 군데와 일치합니다.

나머지 사람들. 톰 렌은 19:05부터 01:12까지 앵커에 있었고, 18분 만에 바다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데일 브로디의 셸리 B호는 일주일 내내 조선소에 올라가 있었습니다. 노라 렌과 잉그리드 소렌슨은 섬에 있었지만, 둘 다 배로 건너오지 않았고 남성용 11호 신발을 신지도 않습니다 — 그리고 잉그리드는 해안경비대의 자동화 검사관이었습니다. 그래서 등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. 보험과 통발 다툼은 엉뚱한 미끼입니다. 러스크의 편지에는 노라가 ‘반대하지 않겠다’고 했다고 쓰여 있지만, 노라 자신의 진술에서는 결정은 사일러스가 할 일이라고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— 노라를 계단이나 계획과 연결하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

사건 종결

에버렛 러스크는 1979년에 끝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. 턴 포인트 홀딩스는 1981년 턴 아일랜드 남쪽 해안에 여름 별장 열한 채를 지었고, 같은 해 등대는 자동화되었습니다.

미제사건 재수사팀이 사건을 다시 열었을 때, 베이뷰 세탁소 접수증은 가게의 오래된 영수증 상자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, 마리나 장부에는 이 해안의 누구도 들어 본 적 없는 이름 옆에 보스턴 전화번호가 여전히 적혀 있었습니다.

여러분의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, 사일러스 렌의 사건도.

수사관

종결일
